



2010년(제52회) 사법시험 수석합격 장 민 하

- 1987년 10월 생
- 전남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대 4년 재학 중

Q 수석 소감에 대해서...

A 처음에 법무부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땐 잘 안 믿겼죠. 언론에도 발표가 나고, 축하전화도 받고 하니깐 실감이 나더군요. 기본이 이상하기도 하고 신나기도 해서 며칠 들떠서 지내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시간이 좀 지나니 제 생활은 그 이전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요.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는 것 빼고는.

Q 좋은 결과의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A 저는 '천재형'이라기보다는 '노력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특별히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도 튀지 않는 아주 평범한 아이입니다. 그런데도 수석의 영예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저 꾸준하고 성실하게 공부해왔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모범생들의 진부한 대답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특별히 내세울 것이라고는 그것밖에 없답니다.

Q 1차 공부과정에 대해 소개부탁드립니다.

A 대학 새내기 때는 마냥 신나게 놀다가, 사법시험제도가 폐지되고 로스쿨제

도가 도입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2학년 올라가면서 학교수업과 병행하면서 기본강의를 쉬엄쉬엄 듣기 시작했고, 08년 초에 연습삼아 가벼운 마음으로 1차시험을 쳤습니다. 물론 떨어졌지요.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고, 2학기 때는 휴학을 하고 진모에 응하면서 공부에 전념해서 다음해 바로 1차시험에 붙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저것 많이 하기 보다는 과목별로 기본강의를 한 번씩 듣고 나서는 혼자서 반복해서 교과서를 읽는 식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진모 때는 진도에 맞춰서 판례집을 읽고 기출문제도 풀어보았습니다. 진모가 끝나고 나서 시험 때 까지 교과서만 열심히 읽었고, 시험 2주전쯤에 진모와 기출문제 풀었던 것을 다시 한번 훑어보면서 문제를 풀던 감각을 되살리고자 했습니다.

Q 2차 기간동안 공부방법에 대해서 소개 바랍니다.

A 초시 때는 학교에 다니느라 후4법 예비순환 동영상 강의만 겨우 듣고서 응했습니다. 초시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2차 공부를 시작하면서 친구, 선배들과 스터디팀을 꾸렸습니다. 1순환 기간 동안에는 재시를 친 선배,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모의고사를 봤는데, 먼저 2차공부를 했던 분들로부터 과목별 공부법, 답안지 쓰는 노하우 등을 배울 수 있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2~3순환은 아침에 학원에 가서 시험을 치고, 학교 중앙도서관으로 돌아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학원 모의고사 진도에 따라 교과서를 읽고 사례집을 보는 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저는 사례를 많이 풀어보지 않아도 교과서를 많이 읽으면서 기본을 이해하면 어떤 문제든 풀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례집은 과목당 하나씩만 사서 매 순환마다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학원 모의고사 문제까지 합치고 나니 상당한 양의 문제를 풀어본 셈이었습니다.

특히 2순환 때는 스터디 팀원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만 민법 사례문제 2개정도씩을 함께 목차를 잡아보는 연습을 했는데, 1순환 민법이 끝나고 2순환 민법에 들어갈 때까지의 긴 시간동안 민법을 놓지 않았다는 점이 나중에 민법 공부할 때나 심리적으로나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원 모의고사를 보다보니, 단순히 교과서 내용을 이해하는 것 외

에 답안지에 써낼 수 있도록 준비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각 과목별로 스프링 노트를 사서 쟁점별로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점/학설/판례/검토를 기본 틀로 해서 노트정리를 하다보니 내용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고, 답안지를 쓸 때도 문제에서 쟁점만 찾으려면 미리 정리해두었던 대로 옮겨 적기만 하면 되니까 시간도 많이 단축되고 깔끔하게 답안을 쓸 수 있어 매우 유용했습니다.

3순환 때 기본3법을 빨리 보는 식으로 해서 시험 전 50일을 확보했고, 4-2-1을 기본으로 해서 각 과목의 특성에 따라 다소 유동적으로 조정된 시간표에 맞추어 학원에는 다니지 않고 혼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교과서를 빠르게 다시 읽고, 기출문제와 전에 풀어본 학원 모의고사 문제들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때 시간이 없어서 정리노트 내지 요약서만 보고 지나고픈 유혹이 있었지만,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신조에 따라 교과서를 놓지 않았습니니다. 과목별로 답안지 쓰는 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나므로, 막판에는 전에 썼던 답안지를 훑어보면서 상기시켜보기도 했습니다. 학원 4순환 문제를 구해서 일부를 풀면서 답안지 쓰는 감을 잃지 않도록 했습니다.

특히 시험이 가까워오자 학교 선배들이 교수님들로부터 문제를 받아서 모의고사를 내고 첨삭해주고, 교수님들께서 강평도 해 주시는 가이우스 모의고사가 각 과목별로 한번 씩 있었는데, 저는 모두 참석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좋은 답안지 쓰는 법에 대한 조언도 해주셨고, 선배들의 첨삭도 매우 자세하고 친절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전에서 가이우스 모의고사 때 풀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제들도 나왔는데, 역시 교수님들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Q 누구에게나 슬럼프가 있기 마련인데요. 극복방법이 궁금합니다.

A 물론 공부하다보면 가끔씩 하기 싫거나 성적이 잘 안 나와서 우울할 때가 있었지만, 딱히 ‘슬럼프’라고 말할만한 시기가 있지는 않았습니니다. 같이 공부하던 주변 친구들도 저에게 ‘한결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했습니다. 그 비결이라면, 심신이 지치지 않도록 적절히 휴식시간을 가졌던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시험 준비를 하면서 적어도 일요일 하루쯤은 늦잠도 자고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것을 먹으러 다녀오곤 했습니다. 워낙 공부 할 게 많으니깐 시간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책을 놓지 않는 분들도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를 너무 몰아세우면 몸도 마음도 지쳐서 오히려 공부하기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루 푹 쉬고 나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다른 날 더욱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슬럼프 없이 긴 수험기간을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Q 스테디(1차, 2차)나 학원이용에 대해 한 말씀부탁드립니다.

A 저는 무작정 학원에 다니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학원에 의존하는 것은 최소화하고 혼자 공부할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차 때도 헌민형과 국제법 기본강의만 듣고, 판례강의 등은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2차 때도 학원에서 짤 일정의 큰 틀은 따라가되, 학원 강의는 필요한 것만 선택해서 이용했습니다. 가령, 후4법 강의는 예비순환 때 들었으므로 1순환 때는 듣지 않아서, 1순환 기간 동안 모든 과목을 한번 씩 더 읽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또 2순환 때는 형소법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강평반을 수강해서 정리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학원 모의고사는 거의 빠짐없이 응시하여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 2차 때는 스테디를 했는데, 공부에 도움이 된 것뿐만 아니라 함께 공부할 좋은 동료들이 생겨서 힘이 많이 되었습니다. 처음 2차 공부를 시작할 때 많이 막막할 수 있는데, 스테디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주변을 봐도 스테디를 했던 친구들의 합격률이 더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Q 3차 면접의 경우 어떻게 대비하셨고, 실제 면접은 어떻게 치르셨는지요?

A 저는 말수가 적고 주로 남의 말을 들어주는 편이라서, 집단면접으로 토론을 할 때 제 의견을 적극적으로 말할 수 있도록 연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친구들과끼리 모여서 시사문제에 대한 토론을 하면서 면접 준비를 했는데, 그 자체로도 매우 재미있었고,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내 생각의 폭도 넓힐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불안감에 친구들과끼리 모여서 시사문제를 놓고 토론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억을 되살리는 차원에서 교과서를 한번 썩 훑어보았습니다.

Q 판사, 검사, 변호사 중 선호하시는 직업과 선호하는 이유 및 향후 되고자 하는 법조인 상은 어떠세요.

A 초등학교 때부터의 장래희망이 판사였어요. 법원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빠
떨어져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으므로, 판사가
된다면 판결로써 우리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도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알고, 흔들림 없이 소신을 지키는 강인
함을 가진 멋진 법조인이 되고 싶습니다.

Q 감사해야 할 분에게 한 말씀해주세요.

A 공부하는 동안 저를 심적인 면에서 지탱해준 엄마, 공부상담 및 많은 조언
을 해준 아빠, 내 성질 다 받아준 동생에게 제일 고맙습니다. 함께 고생하
면서 힘이 되어준 스터디팀 식구들 고마워요. 항상 응원해준 친구들도 고
마워.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친구들, 후배님들이랑 선배님들, 화이
팅이에요!